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방범 카메라 탑재 신시스템 도입

방범 카메라 탑재로 파워업 한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
자판기의 매상금을 노리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3월 1일, 오사카에서 운용 개시!

1. 전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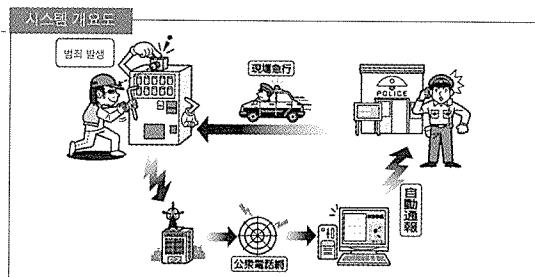
사단법인 전국 청량음료 공업회(회장 : 히라모토 타다하루, 이하 : 전청음),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회장 : 오다기리지郎, 이하 : 자판기공)는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자판기 털이"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의 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재작년에 도쿄에서, 작년 8월에는 아이치현내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방범 카메라를 탑재한 신시스템을 개발해 2006년 3월 1일부터 오사카부내에서 운용을 개시했다. 이 시스템은 자판기에 「비틀어 열어」 등의 부하가 걸리면 자동적으로 카메라가 작동하는 것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호스트 컴퓨터에 자판기의 설치 장소가 전달되어 근처 경찰서의 전용 전화에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리게 된다.

자판기의 이상을 경찰에게 즉석에서 통보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범행시의 동영상 영상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신시스템 도입은 절도범죄의 예방·검거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도입 경위와 오사카부경과의 협력 체제

"자판기 털이"에 머무르지 않고 근년의 범죄 건수의 전체 증가와 검거율의 저하는 많은 국민이 치안 악화에



불안을 느끼는 사태에까지 와 있는 게 사실. 이에 정부도 긴급 대책으로서 해세이 15년 12월, 범죄 대책 각료 회의의 이름으로 「범죄에 강한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 속에서는, 「자동판매기 털이 방지 대책의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는 친밀한 범죄의 억제」를 위한 시책으로서 포함되어 있다. 경찰을 중심으로 사회 전체가 "세계 제일 안전한 나라, 일본"의 실현에 임해 가는 것이 선언되고 있다.

자판기는 판매 대금을 본체 내에 수납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범죄의 대상으로 겨냥되어져 전국에서 연간 약 9만 건의 "자판기 털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오사카에서의 자판기 범죄는 연간 약 8,000건에 달해 그 방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전청음과 자판기공에서는, 평소부터 "자판기 털이"에의 효과적인 대책으로서 「자판기 범

죄 통보 시스템」의 개발에 임해 왔다. 이번에, 전청음과 자판기공은 오사카부경의 요청에 반응해 방범 카메라를 탑재한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을 개발해 오사카부경과의 관민 공동의 체제로 운용에 들어가게 되었다.

3. 방범 카메라 탑재의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이란 ~범인의 동영상 영상으로 검거에~

● 경찰에게 즉석에서 자동 통보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이란 자판기(청량 음료·담배)에 「비틀어 열어」등의 부하가 걸리면 휴대 전화 공중회선을 통해, 전청음내의 호스트 컴퓨터에 이상 정보가 전달되어 근처 경찰서의 전용 전화에게 사전이 일어난 자판기의 설치 장소를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통보함은 물론 범인의 동영상 보존이 가능하다.

24시간 365일, 이상 감지가 가능하다. 「신 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의 신속한 통보에 의해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달려와 피해의 방지, 범죄의 적발에 큰 효과가 있다.

●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성있게 설치 가능

「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은 시스템 전체가 컴팩트한 설계이다. 부착하는 자동발보장치도 작고 설치 작업도 용이하기 때문에 자판기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성 있게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재작년에는 도쿄도내에서 운영을 개시했으며, 작년 8월부터는 아이치현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 방범 카메라 탑재로 파워 업

이번 오사카부내에서 설치 운용하는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은 종래의 시스템을 한층 더 발전시켜 신 기능으로서 소형 방범 카메라를 탑재했음은 물론 범행 시의 동영상도 동시 녹화가 가능하다.

2006년 3월 1일부터 운용을 개시했다. 범행시의 동영상 영상을 해석해 범인을 검거하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오사카부경은 기대를 걸고 있다.

<운용의 포인트>

-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
- 설치가 용이, 기동성있게 설치 운영이 가능

【시스템 개요】

- 시스템 명칭 : 신「자판기 범죄 통보 시스템」
- 운용 개시 : 2006년 3월 1일
- 대상 자판기 : 청량 음료·담배 자판기
- 설치 장소 : 오사카부내 1엔
- 운영 단체 : 사단법인 전국 청량음료 공업회, 일본자동판매기공업회
- 탑재 기능 : 1. 이상 감지시의 자동 통보 기능
2. 이상 감지시의 방범 카메라에 의한 자동 녹화 기능

4. 자판기 범죄의 현황

● 전국의 상황

음료·담배의 자판기는 전국에서 대략 300만대 이상(2004년말 시점)이 가동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대부분이 절도범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른바 "자판기 털이"는 간편한 범죄로서 미성년이 많이 손을 댄 뿐 아니라 근래에는 외국인에 의한 범행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자판기 털이"의 범죄 건수는 7년 전의 1999년을 피크로 줄어드는 경향에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자판기에서는 약 9만건(2005년)이나 발생하고 있다.

● 오사카의 상황

오사카에 있어도 "자판기 털이"는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연간 약 8,000건(2005년 기준)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그 피해 유형을 살펴봤을 때 자판기의 파괴가 보다 교묘하고 흥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